

금호석유화학, 일반직도 임금 동결

일반직 임금 동결에 임원 10% 반납 ... 상생협력 통해 위기극복 의지

금호석유화학 노사가 상생협력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해나가기로 결의했다.

금호석유화학 기옥 사장 및 노조 대표는 1월21일 여수 소재 제1 고무 공장에서 열린 <항구적 노사 산업평화 실천 결의대회>에 참석해 2009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동결하는데 합의했다.

이에 따라 일반직 직원들은 2009년 임금을 동결하고, 임원들은 임금의 10%를 회사에 반납기로 결정했다.

금호석유화학은 지난 1987년 노조 설립 이래 22년간 무분규 타결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.

<항구적 노사 산업평화 실천 결의대회>에는 오현섭 여수시 시장과 장의성 서울지방 노동청장도 참석했다.

금호석유화학 기옥 사장은 “세계적인 경제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노동조합과 임직원들이 결단을 함께 해 큰 힘이 된다”며 “과거 외환위기 사태를 극복한 저력을 바탕으로 회사와 노조의 모든 구성원이 일치·단결해 다시 한 번 위기극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”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1/21>